

민주당 등 탈당파 의원들 지지율 한자릿수 '고전'

설훈·금태섭·양향자·류호정 등 지역구서 양당 후보에 크게 뒤져 비례투표 조국혁신 19% 급상승 새로운미래 지지율 1~2%에 갇혀

탈당파 제3세대 후보들의 지역구 지지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당파 대다수가 신당에 합류했지만 지역구 후보 지지도에서 한 자릿수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는 분석이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화면접조사로 각각 진행된 3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설훈 후보의 지지율은 (조사 당시 무소속) 9% (5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응답률 8.9%), 민주당을 떠나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금태섭 후보는 4% (508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p, 응답률 10%), 민주당 탈당 후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는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는 4% (5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응답률 10%)를 기록했다.

또 같은 조사 업체에서 지난 10~11일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된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을 나와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류호정 후보가 3% (5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응답률 8.1%)에 머물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크호스'로 주목받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서 출마한 인물들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상태인 반면 조국혁신당은 여론조사마다 지지율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4.7%)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7%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고 민주당은 32%로 1%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한 7%를 기록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2%,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합당·진보당은 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7%로, 직전 조사보다 2%p 줄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은 19%로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직전 조사(15%)보다 4%p 오른 수치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은 34%, 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 2%로 집계됐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호 아래 40~50대 핵심 지지 기반이 야권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이 정당지지도와 비례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동반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미래의 지지도가 1~2%에 갇힌 상태에서, 이 당의 대표인 이낙연 후보가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는 36%로 직전 조사(39%)보다 3%p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5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3%), '외교'(12%), '결단력·추진력·목심'(7%), '경제·민생'(5%) 등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의대 정원 확대'(7%) 등이 거론됐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창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사벌대미양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선대위, 위기론 속 첫 회의...“민생 정책으로 승부” 한목소리

막말·망언 과감하게 공천 취소 野에 '정책·클린·미래' 합의 제안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한 달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정책과 민생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막말과 망언이 문제가 된 후보의 공천을 과감히 취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여야가 각자 유리한 프레임으로 누구를 심판해달라는 선거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민 일상을 파고들어야 하고, 정책으로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언론은 자극적 정치 구호에 관심이 갖지만, 유권자는 그 사이에서 정책 공약 한 줄에 투표의 의미를 찾는다”며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심판론도, 야당 심판론도 아니다. 정치심판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이 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린다면 잘못된 연동형 비례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온 뒤 민생이 실종했다. 정치 대화도, 건강한 민주당도 실종됐다”며 “이 대표의 관심은 방탄, 조국 전 장관의 관심은 탄핵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울러 “빨리 이재명 대표를 치워야 모든 게 해결된다”며 “막상 지역구 가서 보니까 민생, 지역발전 등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시간은 다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전 장관은 “저희는 민생 일만 하겠다”며 “실종된 대화와 국민 통합도 진심을 다해서 해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총선은 경제 각국 시대를 열어갈지, 당리당락에 매몰된 우물 안 개구리 나라가 될지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발목 잡힌 통탄의 시절을 넘어설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국정 주도권을 넘겨주고 뒤처지는 나라가 될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 위기의 선거”라고 규정했

다.

이어 “부적절한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대해서 ‘음침마속’의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선진화하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과거 ‘일체 옹호성’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조수연(대전 서갑)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일체의 정쟁을 지양하고 각자의 공약에 집중하는 정책선거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 공작을 선거판 밖으로 몰아내는 클린선거 ▲상대를 비방하는데 몰두함으로써 누가 더 못하나 경쟁하기보다 누가 더 나은 미래 만들 것인가 경쟁하는 미래지향 선거 등 3대 선거 합의를 제안했다.

총괄 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듯 우리 국민의힘은 더 국민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민생 개혁, 정치 개혁에 올인하자”면서 “국민의힘은 정말 일하고 싶다. 동료 시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일하고 싶다. 국민 일선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이종섭 즉각 소환해야...황상무 거취 결단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예비후보(경기 성남 분당을)도 17일 “이종섭 즉시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종섭(주)호주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 대사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일정을 조사 대상자에게 맞출 순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인 도중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 그는 대사직에 임명되고 나서 출국금지가 해제돼 부임했지만, 야권에서 ‘수사 대상자 빼돌리기’라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